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 기업특성별 취업계수 비교와 시사점

목 차

■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 기업특성별 취업계수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기업특성별 고용창출력 비교	3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김 수 형 연 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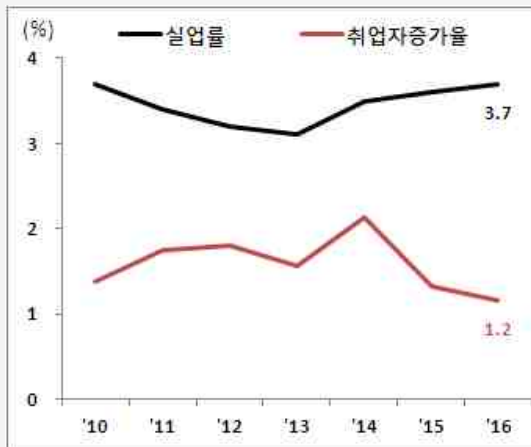
□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 기업특성별 취업계수 비교와 시사점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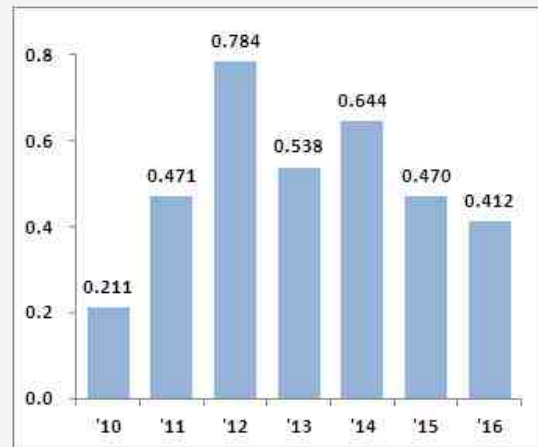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 자체는 경제 전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고용률과 취업률 상승폭이 부진한 점은 노동공급 증대와 노동수요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부진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노동수요 부족과 중장기적 추세인 경제발전단계 성숙화로 인한 고용창출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력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실업률 및 취업자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고용탄성치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기업특성별 고용창출력 비교

이하의 고용창출력 비교는 취업계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취업계수는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고용창출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이다.

(산업 부문) 2016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5명, 23.0명, 28.0명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 또는 건설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 대비 2016년의 취업계수는 각각 95.8%, 96.1%, 88.5%로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속도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 규모) 2015년 종사자 규모 10~299명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3.4명, 1.1명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비 2015년 취업계수는 각각 111.8%, 127.3%로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 상승폭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력) 2014년 업력 5년 미만, 5~15년, 16년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3.5명, 2.8명, 1.5명으로 업력 5년 이상의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은 업력 5년 미만의 신생 사업체에 비해 취약하다. 2011년 대비 2014년 취업계수는 각각 102.3%, 127.4%, 112.2%로 신생 사업체의 고용창출력 상승이 업력 5년 이상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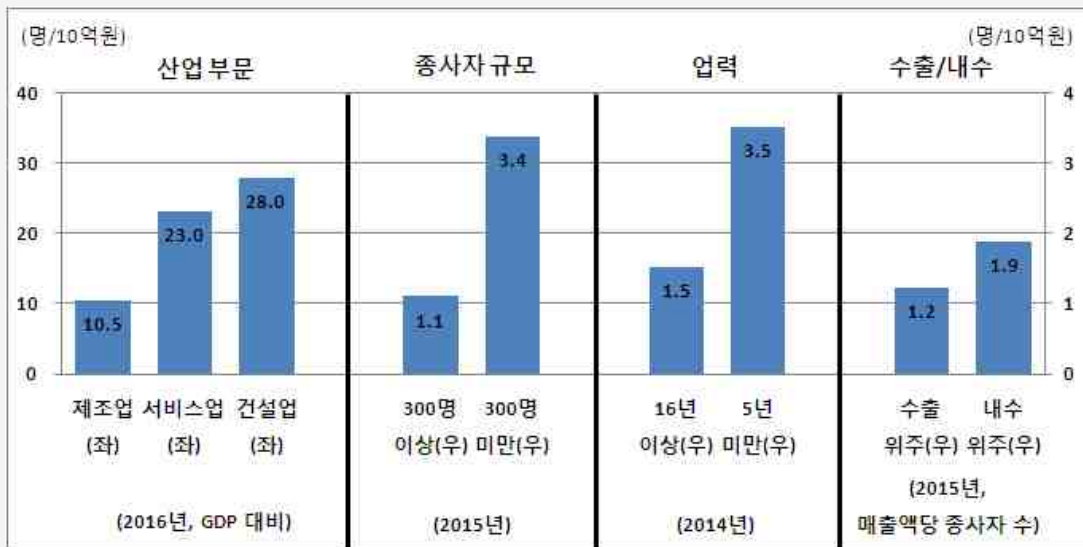
(수출) 2015년 수출위주 및 내수위주 기업¹⁾의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각각 1.2명, 1.9명으로 수출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내수위주 기업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각각 119.3%, 103.2%로 내수위주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의 상승폭은 수출위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합평가) 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업력 측면에서는 신생 사업체, 수출/내수 측면에서는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위 기업들(건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사업체,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시사점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구조를 재편하여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취업계수 비교 >



- 자료1) 산업부문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2) 종사자 규모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3) 업력, 수출 위주 여부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기업활동조사 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2010년 실질 가치)당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
 2) 자료별로 집계방식 및 조사범위 등이 상이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하며 다른 특성간 비교는 어려움.
 3) 수출/내수 위주 기업 비교에서는 취업계수를 매출액당 종사자수로 대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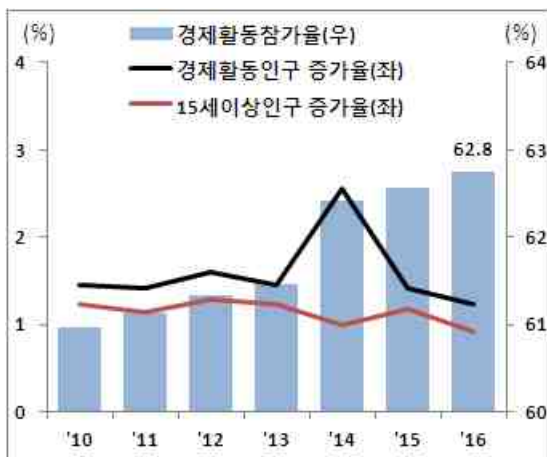
1)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20% 기업을 수출위주 기업으로 분류함.

1. 개요

○ 노동참여증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하나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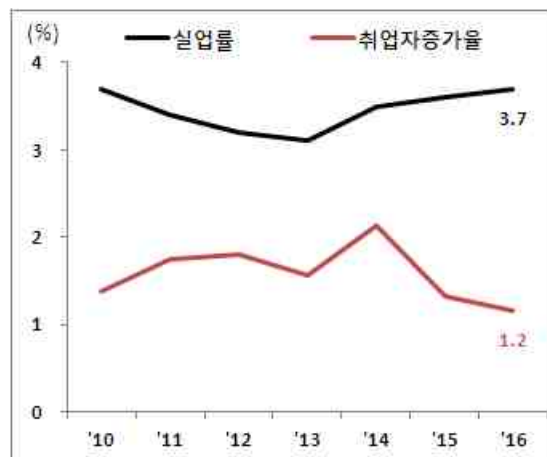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국내 노동공급이 증가
 -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음
 - 실업률은 2014년부터 증가했으며 취업자증가율은 2015년부터 감소하여 고용확대가 부진함
 -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2009년에 급락한 이후 2016년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상승폭이 축소됨
- 노동공급 증가(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실업률 상승 자체는 경제전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용률 및 취업자 상승률이 부진한 점은 노동수요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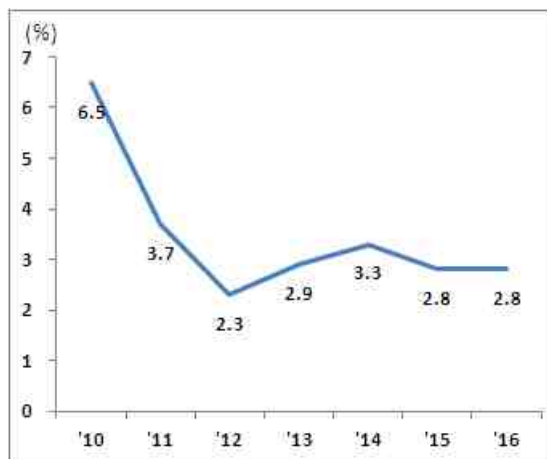
< 실업률 및 취업자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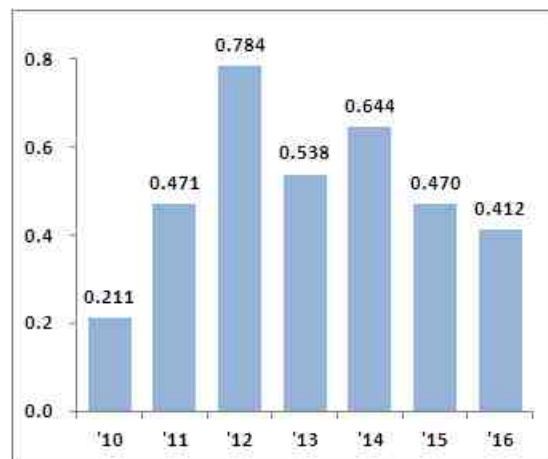
- 경제발전단계의 성숙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점이 고용부진의 원인 중 일부로 지목됨
 - 경제발전단계가 성숙화되면서 2015년 이후 2%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등 경제성장 자체가 추세적 하락세를 보임
 -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2%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연평균 경제성장률(CAGR)은 1991년~2000년에 6.9%였으나 2001년~2010년에는 4.4%, 2011년~2016년에는 3.0%로 하락하여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
 -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약화
 - 일반적으로 노동은 생산물의 파생수요로 인식되어 경제성장 및 생산증대는 고용의 확대를 수반함
 - 고용탄성치²⁾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증가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함
-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창출력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 고용탄성치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2) 고용탄성치는 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로 계산되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표로 활용됨.

2. 기업특성별 고용창출력 비교

1) 분석 방법

○ 기업특성별 고용 관련 지표를 통해 기업특성별 고용창출력을 평가

- 기업의 고용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산업 부문, 규모, 업력, 수출 등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여 고용창출력을 비교
 - 산업 특성에 따라 노동의 자본대체 정도, 기술진보의 영향 등에 차이로 인해 고용창출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의 규모 및 업력에 따라 규제 강도, 시장지배력 등 경영환경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업의 성장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력 또한 상이할 수 있음
 - Jovanovic(1982)³⁾의 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는 기업규모 및 업력에 반비례함
 -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출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기업특성별 취업자 증감을 기여도와 취업계수를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평가
 - 취업자 증감을 기여도를 통해 취업자수 증감의 패턴을 파악
 - 일정기간동안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계수⁴⁾를 중심으로 기업특성별 고용창출력을 평가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수출에 대한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취업자를 비교
 - 본 연구에서는 특성별 차이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이후(2011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용창출력을 평가함

3) JOVANOVIC, Boyan.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82, 649-670.

4)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규모별 및 업력별 분석에서는 광업·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수출비중별 분석에서는 매출액(10억원)당 고용으로 대체함.

< 고용창출력 판단 지표 및 자료 >

구분	고용창출력 판단 지표	자 료
산업 부문	고용 증감률 기여도 취업계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자 규모	고용 증감률 기여도 취업계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업력	고용 증감률 기여도 취업계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수출	취업유발계수 매출액당 종사자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 기업특성별 고용창출

○ (산업 부문별)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건설업의 취업계수의 하락속도가 빠른 편

-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제조업에 비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보임

- 2009년까지는 제조업 부문의 성장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고용없는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은 2009년 불황기에도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여도 측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고용의 확대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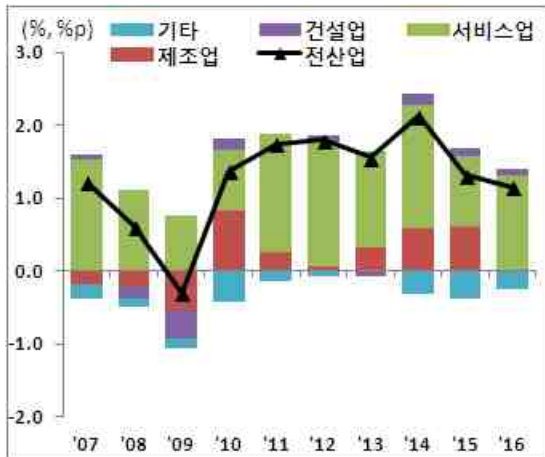
- 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하나 2011년 이후 건설업 취업계수의 하락속도는 타 부문에 비해 빠른 편

- 전산업 취업계수 17.4명에 비해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23.0명, 28.0명으로 제조업 등 타 부문에 비해 높아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의 전산업 취업계수는 2011년의 94.1% 수준이며 제조업, 서비스업,

5) 제조업 부문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6~2009년 기간에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연간으로도 -0.5% 성장한 2009년 외에는 플러스의 성장률을 기록함.

건설업은 각각 95.8%, 96.1%, 88.5%로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이 타 부문에 비해 빠름

< 산업부문별 고용증감률 기여도 >



< 산업부문별 취업계수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실질 GDP 대비 종사자수로 산출되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취업계수와는 차이가 있음.

○ (종사자 규모별)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크나 최근 고용창출력의 상승폭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

- 주로 5인 이상의 사업체는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최근 5명 미만 사업체의 고용이 감소

·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최근 고용경기 약화에 따라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

· 5~299인 및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고용증감기여도는 적으나 전체 사업체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고용창출력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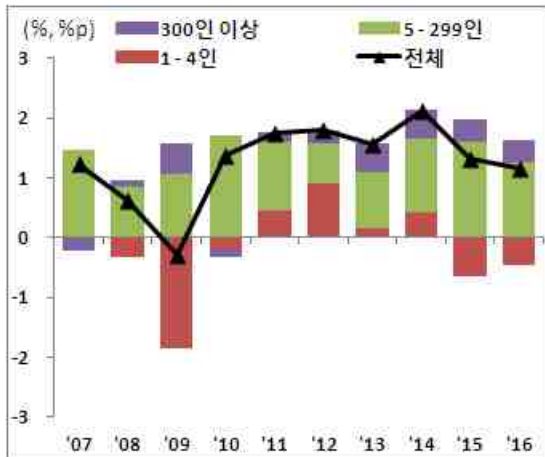
- 3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 이후 상대적으로 하락

· 2015년 300명 미만의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3.4명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 1.1명의 약 3.1배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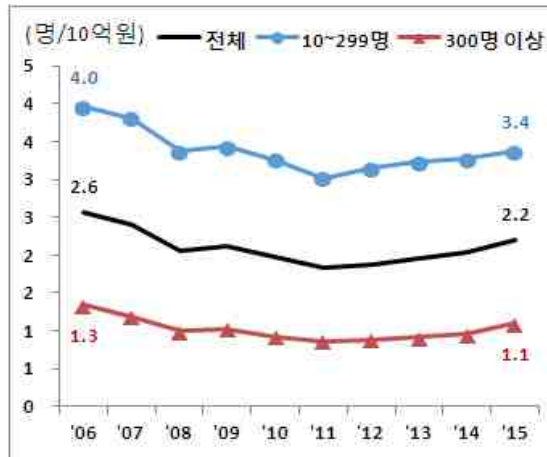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의 전체 사업체 취업계수는 2011년의 120.6%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111.8%, 127.3%로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계수 상승폭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 고용증감률 기여도 >



< 종사자 규모별 취업계수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1) 광업 및 제조업.
- 2) 사업체별 종사자 기준.
- 3)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10년 가치로 실질화.

○ (업력별) 신생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업력이 긴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의 상승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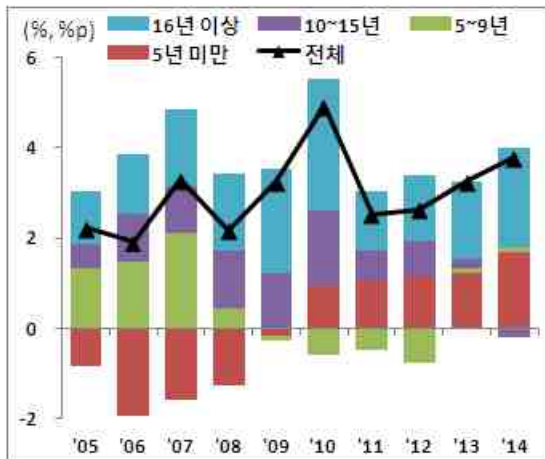
- 업력 5년 미만의 사업체에 의한 고용이 전체 고용비중 및 고용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최근 증가 추세

- 2010년 이후 업력 5년 미만의 사업체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 고용 증가분의 44.7%를 차지
- 2013년 이후 업력 5년~15년의 사업체는 고용증감 기여도가 감소
- 2014년 기준으로 업력 5년 미만 사업체 또는 16년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67.5%이나 고용 증감의 대부분을 차지함

- 신생 사업체에 의한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최근 취업계수의 상승폭이 업력 5년 이상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

- 업력 5년 미만의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3.5명으로 16년 이상의 사업체의 취업계수 1.5명에 비해 낮아 신생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함
- 2014년의 전체 사업체 취업계수는 2011년의 114.4%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업력 5년 미만, 5~15년, 16년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102.3%, 127.4%, 112.2%로 신생 사업체의 취업계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축소

< 업력별 고용증감률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업력별 취업계수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1) 광업 및 제조업만 해당함.
- 2) 사업체별 종사자 기준.
- 3)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가치로 실질화.

○ (수출) 수출에 비해 내수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하나 최근 내수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축소

-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는 내수가 수출보다 강하나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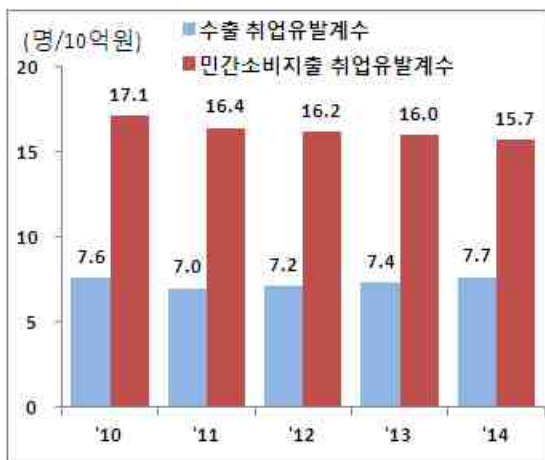
- 2014년 민간소비지출 취업유발계수는 수출 취업유발계수의 2.1배로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는 수출에 비해 내수부문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소비지출의 취업유발계수는 하락했으나 2011년 이후부터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상승하여 내수의 취업유발효과는 약화되나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강화되는 추세

-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수출위주⁶⁾ 기업에 비해 내수위주 기업이 높으나 최

근 내수위주 기업의 매출액당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

- 2015년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내수위주의 기업이 1.9명인데 반해 수출위주의 기업은 1.2명으로 내수위주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양호함
- 2013년 이후 내수위주 기업은 매출액당 고용이 하락하고 있으나 수출위주 기업은 상승
- 2015년의 전체 기업의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2011년의 112.1%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수출위주 및 내수위주 기업의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각각 119.3%, 103.2%로 내수위주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수출위주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음

< 수출 및 민간소비지출 취업유발계수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1) 소비, 수출 등 실제 최종수요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
 2) 2010년 가격 기준.

< 수출/내수 위주 매출액당 종사자수 >



자료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상위 20% 기업을 수출위주 기업으로 분류함.
 2)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가치로 실질화.

3)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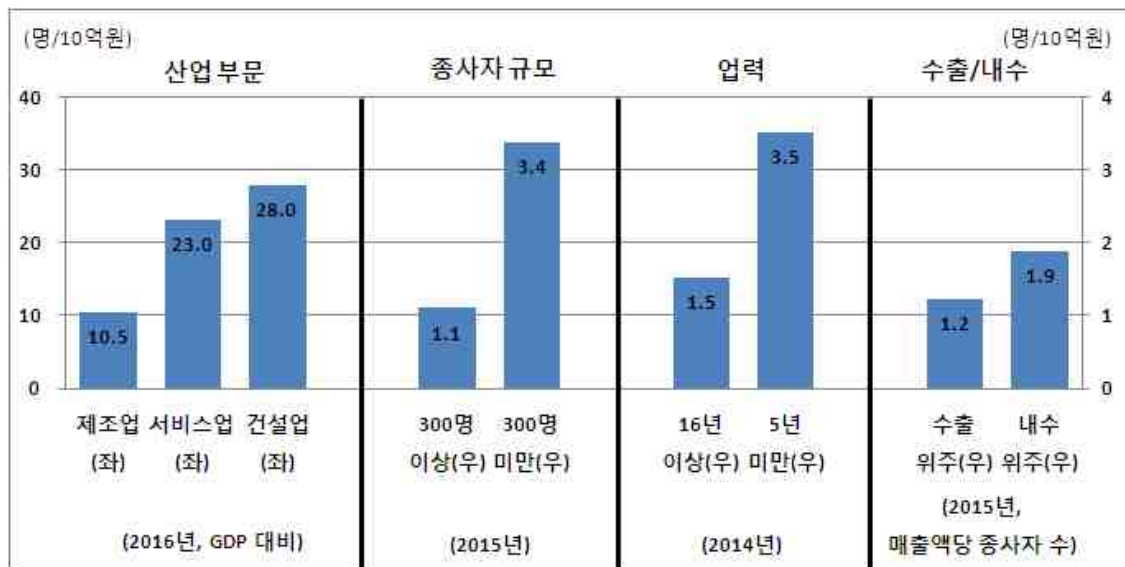
-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 사업체, 내수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

6)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20% 기업을 수출위주 기업으로 분류함.
 7) 취업유발계수는 소비, 수출 등 실제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비용자 수로 취업계수와는 달리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까지 고려됨.

-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 사업체, 내수기업의 고용창출력 판단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산업부문)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고용 증가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해왔으며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 (종사자 규모) 소규모 사업체는 고용창출력이 크나 최근에는 종사자수가 감소세
- (업력별) 신생 사업체는 여타 사업체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크나 최근 고용창출력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축소
- (수출) 수출에 비해 내수의 고용창출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수출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취업계수 비교 >



- 자료1) 산업부문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2) 종사자 규모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3) 업력, 수출 위주 여부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기업활동조사 자료(마이 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2010년 실질 가치)당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
 2) 자료별로 집계방식 및 조사범위 등이 상이하어 다소 차이가 발생하며 다른 특성간 비교는 어려움.
 3) 수출/내수 위주 기업 비교에서는 취업계수를 매출액당 종사자수로 대체함.

3. 시사점

첫째,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고용을 증진시키고 고용의 질을 개선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고용률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비중은 낮음⁸⁾
 - 중장기적으로 학력 등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고용을 확대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력 및 근로효율성을 강화
 - 한국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근로시스템을 개선하여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워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력 및 근로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출산·육아휴직 제도,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함
-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
 -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기업의 고용창출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고용창출의 주체는 여전히 기업이며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

둘째,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서비스 산업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8) 현대경제연구원,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 OECD 비교와 시사점”(2017년 8월).

-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서비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통해 인센티브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및 고용창출력 회복을 도모
 -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저수익성 사업구조, 혁신 역량 약화 등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야 함
-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기술 접목 등 산업·기술간 융합 및 혁신을 장려
 - 기술 융합 및 혁신은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하나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신사업분야 창출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확대를 유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 질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를 완화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이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

넷째,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 기업 설립,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
 -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업 생태계가 역동적일수록 혁신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한 신생 기업의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됨

- 창업·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업 실패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
 -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업 실패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창업·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는 혁신성 등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함

다섯째,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구조를 재편하여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내수시장을 확대시켜 고용 및 소비를 통한 기업-가계간의 선순환구조를 강화
 - 경제성장의 결실이 가계부문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민간부문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함
-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소비재 위주로 재편하여 수출의 고용창출력을 강화
 - 내수에 비해 수출의 고용창출력이 낮은 원인으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점이 지목되고 있음
 - 소비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대외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대외충격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용을 안정화
 - 소규모 및 신생 기업은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경기변동의 폭을 최소화하여 소규모 및 신생 기업에 의한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함
 - 중국·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ASEAN 등 신흥국으로 수출다변화를 유도 **HRI**

김 수 형 연구원 (2072-6217, soohyung@hri.co.kr)